단오 소금으로 "마음속 화마 해소"

〈火魔〉

통도사 용왕재로 '화합' 되새겨
해인사 팔만대장경 · 가야산 수호
범어사 고당재서 시민 안전 기원
내원사도 천성산 자연 보존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병오년 단오 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이 동참 불자들에게 화마를 막는 의미가 담긴 소금을 나누어주고 있다.

민족 명절 단오를 맞아 전국 주요 사찰들이 화마(火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전통의 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19일 설법전에서 화마를 막고 도량과 대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병오년 단오 용왕재'를 봉행했다. 용왕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용왕재가 단순한 화재 예방 의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방편임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오늘 용왕재는 모든 갈등을 다스리고 화합의 지혜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참석한 모든 분에게 마음속 화마를 진압할 수 있는 여의주를 무상으로 선물하니, 각자의 가정과 내면에 화재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 직후 통도사는 경내 각 전각 기둥에 올려진 소금단지를 새것으로 교체하며 도량의 안전을 서원했다.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항화마진언(降火魔眞言)과 대광명전 평방에 새겨진 게송이 적힌 소금 봉투가 배포됐다.

소금 봉투에 적힌 '오가유일객(吾家有一客) 정시해중인(定時海中人) 구탄천창수(口呑天漲水) 능살화정신(能殺火情神)'은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도 단오를 맞아 6월 19일 경내와 가야산 남산제일봉 일원에서 '소금 묻기' 등 전통문화행사를 봉행하며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수호,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해인사는 매년 단오가 되면 경내와 가야산 일원에 소금을 묻는 의식을 이어오며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팔만대장경과 사찰, 그리고 가야산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원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법보전에 봉안했던 소금단지를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전달하는 의식에 이어 대중은 대적광전에서 우화당, 봉황문, 율학승가대학원 앞 삼거리, 용탑선원 입구를 거쳐 가야산 남산제일봉인 매화산으로 이동했다.

남산제일봉에서는 반야심경 봉독과 축원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 대중은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가야산 산림의 보호와 국태민안, 사부대중의 안녕을 발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량 수호의 서원을 담아 법보전에 봉안했던 소금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도량을 지키고자 했던 발원을 각 가정으로 이어가고,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나아가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함께 나눴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단오절을 맞아 금정산 정상에서 부산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염원하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6월 19일 금정산 고당봉 고모당에서 '병오년 단오 고당재'를 엄수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이날 헌공하며 금정산에 깃든 모든 생명의 안위와 부산 시민의 행복을 발원했다.

단오 고당재는 범어사가 매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불교 전통 의식이다. 사찰과 산중의 화재를 예방하고 수행 도량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선대 스님들의 호국불교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의식이 열린 고모당은 산왕대신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범어사를 외호했던 화주보살 밀양 박씨를 고모영신(姑母靈神)으로 모신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전각이다.

양산 내원사(주지 지은 스님)는 6월 19일 천성산 정상에서 단오제를 봉행하며 원효봉 습지의 원형 복원과 천성산 자연환경 보전을 발원했다.

내원사는 매년 단오를 맞아 천성산 정상에서 산재(山祭)를 봉행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특히 올해 단오제는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훼손된 원효봉 일대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태계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인도에 한글 도서 2만권 기증

6월 18일, 세상을향기롭게
정여 스님 책 번역 인연으로
디브르가대 한글센터에 전달



부산 지역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의료 시민단체가 인도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대규모 도서 보시행을 펼쳤다.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금정총림 방장)와 국제종교연합은 6월 18일 부산 온병원에서 '인도 아삼주 한글도서 기증식'을 열고 2만권의 책을 현지로 발송했다. 이번 나눔에는 범어사를 비롯해 그린닥터스재단, 온병원그룹 등 부산 지역사회가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신항을 출발한 184개 상자 분량의 도서는 소설과 수필, 역사서,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서적으로 구성됐다. 목적지는 인도 아삼주에 위치한 디브르가대학교(Dibrugarh University) 한글센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세상을향기롭게와 그린닥터스재단이 인도 아삼주에서 전개한 의료 및 교육 봉사가 마중물이 됐다. 당시 디브르가대 한글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정여 스님의 저서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을 인도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뜻깊은 인연이 맺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 학생들의 열정은 높지만 정작 읽을 수 있는 한글 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단체들은 디브르가대학교 내 한국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 모으기 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만권의 장서가 마련됐으며, 운송비용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아삼 봉사 사진전 수익금과 십시일반 모인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발송식에는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과 임영문 평화교회 목사, 신요안 안락성당 신부,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생명 존중과 화합의 가치를 나눴다.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디브르가대학교 한글학과 졸업생이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을 인도어로 번역해 출판한 인연으로 현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이 행복해야 비로소 나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아삼 지역 학생들이 우리가 보낸 책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장애청년 홀로서기 후원

6월 20일, 부산장애인복지관
자립 장학금 500만원 전달



장애를 안고 사회라는 낯선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미소원 청년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6월 20일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청년 장애인 자립 응원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청년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 사업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들은 획일화된 용도가 아닌 취업 준비용 노트북 구매, 전문 자격증 취득, 체육 특기 개발을 위한 장비 마련, 재활 치료 등 각자가 세운 맞춤형 진로 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활용하게 된다.

장학생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양주원 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컸으나 이번 장학금이 큰 용기가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양 씨는 "그동안 온라인 영상으로 어렵게 독학하던 일본어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다겸 미소원 청년회장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 속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이 장학금이 청년들이 사회라는 거친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때 믿고 딛을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경쟁 넘어 공존" 지도자 연수

6월 20일, 경주 황룡원서
전국 연꽃문화제 시상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미수 스님)이 다가오는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단법인 동련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80여 명의 전국 어린이 불교 지도자가 동참한 이번 연수회는 '우리가 만나는 붓다피아'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의 관계기술에 주목했다.

참가자들은 여름불교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나는 율동과 협동 놀이, 마음을 나누는 만들기 활동 등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프로그램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고, 사찰 내에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연수회 기간 중 '제42회 전국 연꽃문화제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본상 수상자 18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 가운데, 글짓기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서대전초등학교 5학년 김율곡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동련 부총재 운성 스님이 시상했다. 이어 부문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울산 선암어린이집 주하운(6세) 어린이가 받았으며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상장을 수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상반기 분야별 연수

6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스피치 특강' 전문성 높여



탈종교 시대를 맞아 진정성 있는 언어와 소통 능력으로 전법의 새길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은 6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상반기 분야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포교사들의 수행과 포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종단이 추진하는 명상 포교의 대중화를 이끌 인적 자산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포교국장 해공 스님, 정연숙 포교사단 부단장, 박종안 부산지역단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포교사 400여 명이 동참해 전법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특히 올해 연수는 매년 진행하던 팀별 활동 사례 발표를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포교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질인 '스피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방송 1기 아나운서 출신인 이현정 강사의 '포교도 결국 스피치다' 주제 특강 통해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전달력과 의사소통 기법, 조직 내 리더십 등을 배웠다.

이날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포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박종안 부산지역단장은 "이번 연수가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부산 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경남, 명상포교 방안 모색

6월 21일, 쌍계사서 연수교육
포교환경 변화 대응 · 역량 강화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이원환)은 6월 21일 하동 쌍계사 템플관에서 '2026 경남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원환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에서 "종교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탈종교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명상과 소통, 불교문화해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포교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정연숙 부단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명상상담사 자격과정을 통해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포교와 수행의 현장에서도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명상포교와 불교문화해설,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포교환경에 대응해 전문 포교사의 역할과 명상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승가 일원 사명감으로 정진"

대승불교조계종, 법계 품서
종사2 · 명덕5 · 종덕1 · 혜덕2명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관 스님)은 6월 22일 울산 미정사에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계수여식에서는 종사 2명, 명덕 5명, 종덕 1명, 혜덕 2명 등 총 10명이 법계증을 받았다.

총무원장 혜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정법을 수호하는 승가의 일원으로서 계율을 지키며 수행정진에 힘써야 한다"며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종단의 법계 질서가 원칙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오늘 품계를 받은 스님들 모두가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종단 구성원들의 화합과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

"내년엔 더 여법한 연등회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6월 24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연등회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부산연등문화제에 약 25만명의 시민이 다녀갔으며,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린 부산연등회 본 행사에도 약 5000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4월 박봉덕 한지체험관에서 진행된 전통등 및 특별 전 관불단 지화 강습회는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행사 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현장 실무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여법하고 찬란한 부산연등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